**연중제24주일(2018년 9월 16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복음은 참 의미심장한 장면이 몇가지가 나옵니다. 의미를 알고 읽기 시작하면, 복음서는 엄청난 신비와 기적이 가득한 책입니다.   
  
먼저, 장소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카이사리아 필립피 지역이라고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데, 이곳은 갈릴래아로부터 북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래아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셨는데, 가끔 남쪽의 사마리아나, 북쪽의 티로와 시돈 지역에도 가십니다. 이곳은 모두 이방인지역입니다.   
  
오늘 무대가 되는 카이사리아 필립피 지역은 그 이름부터 특이합니다. 영어는 Caesarea Philippi 라고 하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의 황제 ‘시저(Caesar)’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서 유행하던 아주 화려하고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로마 문화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숭배하는 여러 신들의 동상들, 그리고 황제 시저(Caesar)의 동상이 크게 서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었죠. 이곳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놀랍습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축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에 따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은 왕의 대관식때 행해지던 예식이었습니다. 대사제나 임명을 받은 원로가 왕으로 즉위하는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축성을 합니다. 왕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예식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축성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신으로부터 선택되어서 머리에 기름 부음 예식을 받고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 앗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에 점령 당하면서 몇 백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적 영웅을 이름하여, 자기 언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학수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다윗의 고을에서 태어날 거라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볼일 없는 떠돌이 가난한 목수 설교가 예수는 다윗 고을과는 상관없는 나자렛에서 왔단 말입니다. 사실 예수는 다윗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저 나자렛에서 왔거니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출신 지역부터 보잘 것 없는 시골 나자렛에서 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놀랍고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이 하는 행동들이 진짜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주저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가 가득하고, 세상의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이방인 땅에서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이 질문,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로,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말로만 그런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구원자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 우리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어서 의미심장한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첫번째 ‘수난 예고’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웅처럼 등장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멋지게 구해내는 ‘수퍼 히어로’의 모습인데, 고난 받고,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반박을 합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베드로를 그냥 보내 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구나!” 이 딱 한 마디에 베드로가 찍소리 못 합니다!  
  
지금 세상에, 만일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런 말했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예를 들어, 신부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세상 난리 납니다. “이보쇼, 내가 누군데, 감히 날 보고 이런 무례한 말 하느냐”고, ‘당신이 뭔데 날 무시하느냐”고 큰 소리치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모욕과 수치를 당했겠습니다. 사람들 많은데서,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서,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우리같으면 이런 상황을 참겠습니까?   
  
“스승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 내가 너 따라다니나 봐라! 당신이 스승이면 다냐? 니가 뭔데 나를 무시해!” 하면서, 있는데로 성질 다 내면서 떠날 겁니다. 스승이라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 많은데서 면박 줬다고, 그래서 상처 받았다고 난리 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묵히 참습니다. 베드로가 자존심도 없고 멍청하고 바보라서 그냥 참고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내 한 몸 먼저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고집부리고, 잘 난척 하고,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또 서로 상처주고 삽니까!   
  
그렇게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심하게 한 마디 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